

# 전주영상위원회 20주년 행사 다채

지역영화 정책 컨퍼런스 · 무료 상영전 · 아카이브 백서 발간 등 진행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전주 지역영화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컨퍼런스, 시민 대상의 무료 상영전, 아카이브 백서 발간 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전주국제영화제와 공동 개최하는 '전주 지역영화정책 진단과 방향'은 전주 지역영화 미래 20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로, 한국의 지역영화정책 현황과 방향성 연구를 바탕으로 운영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확립을 위한 인천영상위원회와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의 사례 발표를 듣는다. 또한 2023년 건립 예정인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계획을 통한 전주 지역영화정책의 미래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토론했다.

8월 개최 예정인 전주영상위원회 20주년 기념 상영전은 전주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지원자 및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대표작 등 20년 역사의 유의미한 영화들을 선정해 상영하는 무

료 상영전이다.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영전은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 단계 조정에 따라 규모와 시기 등을 조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발간되는 전주영상위원회 아카이브 백서 'Scene 20' (가제)은 전주영상위원회의 20년 역사를 정리한 기념 책자로, 로케이션 지원자 및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촬영 지원자, 제작지원자 등 지난 20년 간 전주영화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주영상위원회의 발자취를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한다.

특히 전주영상위원회 2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와 엠블럼은 각각 수많은 영화 장면들의 교차로 직조된 20년 히스토리의 컬러감과 '전주 영화'의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J FILM'의 네이밍으로 표현했다.

한편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영상물 촬영유치·지원사업을 토대로 전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영상관련 인재육성, 영상산업인프라 확충, 나아가 전주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영상산업도시로 그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1년 설립됐다. /정은성 기자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공개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 선보이고 있는 한병아 감독 연출

'영화는 계속된다'는 슬로건과 함께 오는 29일 개막하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봉)가 올해 영화제의 공식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들이 멈춘 상황에서도 '영화는 계속된다'는 바램을 담아 영화의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흥겨운 전통 리듬을 더해 역동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화와 예술, 영화제를 통해 세상과 만나고 싶은 관객과 영화인들의 마음, 또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영화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고스란히 담아낸 셈이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한병아 감독이 연출하고 국악 크로스오버 그룹 악단광철의 '노자노자'가 음악으로 사용됐다. <숙녀들의 하룻밤>(2011), <미세스 로렌스>(2016), <휴일의 평화>(2017)에 이어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에서 <우주의 끝>(2020)으로 대상을 수상한 한병아 감독은 "많은 것이 멈춘 팬데믹 시대에도 영화의 영혼은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연출의 변을 전했다.

또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막막한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영화는 무한한 꿈을 꾸며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과 각오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악단광철의 음악이 멋진 영감이 되어 주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양은경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신규 상품 선보인다

신규 입점 상품 모집 공모 통해 선정된 공예품 30점 입점 완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2021년 신규 입점 상품 모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예품 30점이 입점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공예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입점 공모 선발에는 52개 업체, 총 98점의 공예품이 모집됐으며, 모집된 공예품은 외부 전문가 5인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26개 업체, 30점의 공예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신규 입점 상품은 현재 전주공예품전시관 명품관에 전시돼 한옥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 및 전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신규 입점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명인들'에 등록될 예정이며, 최근 판매용 연출 상품 촬영을 마치고 상품 업로드를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 중이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예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김경실 교수는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장인들의 숨결을 보여주며 전주다운 제품을 선보이는 공간"이라며 "심사에 나온 98개 작품 중 현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실용적인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입점 심사에 출품한 공예품의 디자인과 상품성이 발전해간다"며 "공예인들의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이 공예문화를 발전시켜 전주가 더욱 전주다운 도시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를 진행한 김혜원 공예문화산업팀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예기술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공예인의 역할이라면, 잘 만들어진 공예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은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역할"이라며 "심사를 통해 입점된 공예품의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초여름 자연 속에서 낭만을 선물하는 '무주산골영화제' (6.3~6.6. / 6.11~6.13)가 제9회 공식 포스터를 공개한다.

2021년, 아홉 번째 영화 소풍을 준비 중인 무주산골영화제가 초록빛 에너지와 모두의 바람을 가득 담은 올해의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식 포스터는 마치 선물 상자를 여는 듯 산머리를 열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화적 상상력으로 표현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는 예전처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상에 대한 모두의 소망을 드러낸다. 특히 포스터 중앙의 밝은 색채와 활기차고 즐거운 사람들의 모습이 초여름 무주의 싱그러움 에너지를 느끼게 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건강한 일상을 바라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해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포스터로 큰 사랑을 받은 김영준 작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식 포스터 작업을 맡았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모레퍼시픽, 현대백화점, 국립한글박물관 등과 다양한 협업을 지속하며 주목받아온 그는 이 외에도 뮤지션 김동률과 아이유의 '동화' 뮤직비디오와 네이버 '지구의 날' 로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르적 확장성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영준 작가는 올해 포스터에 대해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경험했고 여전히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순탄치 않은 시간이지만 그럼



에도 이 모든 시간은 여전히 소중하다. 이 시간들은 쉼이 쌓여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린 그렇게 다시 부둥켜안고 무주에서 만날 것을 알고 있기에 건강한 기다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밝은 컬러를 활용해 자연과 사람들이 가진 활기찬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정읍시, 제1회 전국 황도현 시(詩)문학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정읍시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제54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맞아 실시한 '제1회 전국 황도현 시(詩)문학상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의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24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24일간 총 767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일주일간 두 차례의 예심을 거쳐 압축된 91편의 시 가운데 총 41편의 입선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유국환 씨의 출품작 '부활하는 집강소'가 대상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또 최우수상에는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김하원 씨의 작품 '꽃들의 합창'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고양시 김경립 씨의 작품 '고부 일기'와 정읍시 최혜숙 씨의 '나는 무명 농민군인'이 수상작에 올랐다.

수상 작품은 5월 8일 '제54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시상 후 공개할 예정이며 기념식은 유튜브 채널 '황도현 기념제'를 통해 생중계된다.

시는 선정된 작품들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모든 행사에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